

보도시점 2026. 4. 9.(목) 09:00 배포 2026. 4. 9.(목) 08:30



- “월급은 ‘좋아요’로 받겠습니다!” - 캐릭터 ‘미리·이피’, 지식재산처 대변인 되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4. 9.(목) 기관을 대표하는 캐릭터 ‘미리’와 ‘이피’가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캐릭터는 지난 2025년 10월 지식재산처 출범 이후 지식재산 분야 총괄·조정부처로서의 변화된 위상과 전망을 상징하는 ‘첫 번째 얼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새 캐릭터는 직원들이 자신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하여 제출한 시안들 가운데 내부 선정절차를 거쳐 탄생했다. ‘미리’는 지식재산을 ‘미리’ 예방하고 보호한다는 의미와 함께 미래를 ‘미리’ 준비한다는 뜻을 담아 방패를 든 수호자의 모습으로 그려졌다.

‘이피’는 창의적인 생각을 전구로 형상화하여 ‘오늘의 생각을 내일의 자산으로 만드는’ 지식재산처의 모습을 담아냈다. ‘미리’와 ‘이피’는 상표 및 업무표장 등록을 완료(‘26. 3.)하여 정책 홍보 현장에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미리’와 ‘이피’는 누리소통망(SNS)과 정책 현장을 누비며, 어렵고 생소할 수 있는 지식재산 기사와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는 역할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정대순 지식재산처 대변인은 “두 캐릭터에는 국민의 소중한 생각을 ‘미리’ 보호하고,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이피’겠다는(입히겠다는) 지식재산처의 굳은 의지를 담아냈다”며 “새 이름으로 도약하는 지식재산처의 든든한 대변인으로서 큰 활약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부서	대변인실	책임자	과 장	정대순 (042-481-5027)
		담당자	사무관	김광현 (042-481-1670)